

##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서울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본인은 세계경제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 사공일 이사장께서 명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세계경제연구원을 창립한 사공일 이사장님의 깊은 통찰력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닌 세계경제의 강력한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보면 본인은 귀 연구원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최고의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아 온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본인은 봄철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특히 기쁘다. 본인은 미국 재무부에 근무하고 사공일 이사장께서는 한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1980년대 말에, 환율 및 금융시장 등의 사안에 대해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고 조금 전 사공일 이사장께서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사공일 장관께서는 항상 겨울철에 본인을 한국으로 초청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사공일 장관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방한을 단념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유난히 추운 어느 1월의 주말에, 사공일 장관께서는 본인에게 논의를 잠시 접고 설악산으로 산행을 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설악산에는 갈 수 없었고, 그 대신 약간 남쪽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신발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언 발을 녹이는데 꼬박 1주일이 걸렸던 적이 있다. 서울은 겨울보다 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서울방문이 언제나 즐겁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고 있다.

어쨌든, 한국경제가 회생되고 있을 즈음에 서울에 오게 되어 너무 좋다. 물론 한국의 경제회생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2~3년 전에는 침체된 한국경제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특히 약 4년 전 월드컵에서 이룬 한국의 성적으로 볼 때 한국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세계야구대회(World's Baseball Classic)에서 이룬 한국의 성적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은 한국이 개방경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에 좋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본인이 서울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한 후,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세계정세를 잠깐 보기 위해 TV를 켰다. TV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

\* 이 글은 2006년 5월 10일 개최된 'IGE/Prudential 국제금융특강'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이치로 스즈키(Ichiro Suzuki)의 홈런장면 모음이 방영되고 있었다. 그 순간, 일본 최고 야구선수 중 한 사람의 홈런장면들을 이곳 한국에서 볼 수 있으니 한국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한국은 본인이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자신감에 차 있다.

세계경제 속의 한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본인은 세계화된 경제 틀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과 극복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가 시작되었던 “최상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경제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다.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취약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까지 하다.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조짐이다. 약 15년을 허송세월한 일본경제가 활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유럽경제도 회생의 조짐이 약간 보인다. 수출 원동력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자국경제에 대한 규제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독일이 한 예이다. 기타 신흥시장의 경우,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타 신흥시장들도 작년에는 평균 5% 이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남미, 중부 유럽, 일부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유가상승에 힘입은 중동도 포함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0%와 8%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시아 경제도 5~5.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과 인도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이지만 세계경제 상위권의 입지를 굳히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양국 경제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기서 잠시, 세계경제 저변에 놓여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앞서 사공일 이사장께서 1980년대 중반에 본인과 논의했던 과제들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당시의 논의는 환율 및 세계수요균형을 재조정하여 세계적 불균형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G-5 회원국의 공동노력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그러한 노력은 결국 효과가 있었다. 비록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가 미국경제를 일시적으로 후퇴시키긴 했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심각한 세계적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작가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소설인 셜록 홈즈(Sherlock Holmes) 시리즈 중에 “The

Seven-Percent Solution"이라는 작품이 있다. 지금 우리도 7%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GDP 대비 7%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와 7%의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그것이며,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계적 불균형은 이러한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시장의 힘을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권위 있게 대외수지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분명히 없다. 한국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와 같은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매일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본인이 중부유럽에서 아직도 시장경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강연에서 본인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20억 달러를 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하자, 누군가가 주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래서 본인은 미국의 경상적자 규모가 막대하여 세계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말도 해당된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자금조달이 시장으로서의 매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달러화 또는 세계경제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위의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G-7 국가 및 그 외 선도적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제도가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함은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한국 정부당국이 환율정책에서 보여준 용기와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심지어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본까지도 세계적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장애요인이었던 환율정책을 고수해왔다. 물론 세계적 불균형에 대한 조정 부담을 아시아가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를 해결해야 할 미국과 유럽의 책임은 막대하다. 미국의 국내저축률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에 의해 창출되는 역동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전 세계가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적 불균형의 양상을 보면 다소 취약한 달러화, 세계적인 금리상승 추세, 많은 나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 등의 요인이 사실상 혼합되어 있다. 이 모든 것에 의해 이루어진 환경이 지금 한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것은 친분 있는 본인의 한국 정책결정자들이 두 가지 측

면에 집중하여 계속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함이다.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 구도와 정책을 보면, 몇 년 전 신용카드 사용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기조는 매우 견실하다. 한국경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도 함께 언급해달라는 사공일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할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은 국제수지, 물가상승, 재정 전반을 보더라도 착실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율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일찍 깨달은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은 앞서 본인이 언급한 바와 같다.

외환보유고의 축적, 1인당 개인소득 증가 등에서 지난 8여 년간 한국경제가 이룩한 것을 보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암울했던 1997년의 11,000달러에서 16,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금융부문도 20년 전과는 달리 매우 견실해졌으며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금융업체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는 주요 한국 금융업체들의 존재가 이를 증명한다. 현재 세계 유수의 금융업체들이 모두 한국에 진출해 있지만, 한국 금융업체들은 이들과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그러나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두 가지 원대한 목표에서 보면, 많은 준비와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는 하나 한국은 자신감과 진지한 결의를 가지고 더욱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과 1주일 전에 본인은 싱가포르에 있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싱가포르와 홍콩은 지역 금융중심지로서 몇 가지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컨대 매력적인 연금기금 규모,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환경, 기술 및 전문가와 첨단 제품을 가진 외국기업의 진입허용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 등으로 인해 투자여력을 가진 자금들의 활동공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독립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 등 일부 조치들은 이와 같은 노력의 구체적 사례라 하겠다. 어제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본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 금융기관들의 한국 내 개점 및 영업확대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1주일 전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뜻 깊은 신호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는 펼쳐버려야 할 해묵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작년에 출범한 한국투자공사와 외환자유화의 전면적 지향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본인이 권장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러한 것이 충분한 조치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한국 금융시장, 나아가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몇 가지 해묵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인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노동시장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충분히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생산요소 중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대폭 제고하여 본연의 수많은 장점들과 융합시켜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유연성 있는 노동력을 첨단기술과 융합시키지 않고 최고 첨단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끌어온 과제인 만큼 정부 및 기업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내 외국인 진입 등과 같은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본인은 한국이 과거의 풍조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는 왜 한국에서 이따금 방어적이고 다소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어느 곳이든 외국인에 대해 다소 방어적이고 민족주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미래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모든 가계들이 다음 세대가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유복하기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와 같은 과거의 풍조를 떨쳐버려야 한다. 아직도 가끔씩 나타나는 한국경제 내 외국인 진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풍조는 점차 과거지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여타지역을 상대하기 어려운 경쟁자로 보는 시각 역시 과거의 것으로 묻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어느 경제와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내 외국인 진입과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이러한 정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업환경은 일반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게 비교적 활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계속 비춰질 것이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투자가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지적한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통해 보다 역동적으로 세계시장과 통합됨으로써 한국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더욱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를 이루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한국에게 튼튼한 밑받침이 될 수 있다. 제조업과 첨단기술에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장점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금융시장 및 세계경제 전체와의 통합이 한층 심화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도 지나친 경제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

제에 대한 정부 불개입 및 규제완화 노력은 사공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고위 정책담당자 재임시절인 1980년대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20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만일 세계적인 추세를 따랐다면 한국은 성공했을 것이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세계적 추세는 세계화와 시장원리 두 가지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한국은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시각이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룩한 것을 견지하려면 자신감 있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도입해야 하며, 한국시장에서 활동 및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것만이 한국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s) 내의 기본 장점과 탄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허브(hub) 구축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조세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세계금융시장 발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조세정책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외국 및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및 투자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현주소를 자세히 검토하여 기업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한국이 금융중심지가 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과 충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일부 사업장을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과 관련이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강화 역시 중요하다. 본인은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목격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기업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된 한국에서도 나타난다.

한-미 FTA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본인은 이번 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본인에게는, 오늘날의 시장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가능한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한국 지도층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의 혜택을 받게 될 공산은 아주 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한국은 그 기회를 이용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무역상대방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가 중국과 인도에 매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은 경제와 금융기반이 매우 건실하다. 현재 금융시스템 면에서 중국 및 인도와 한국을 비교해 볼 때, 중국과 인도가 실제로 과장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본인으로서의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중국과 인도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양국이 무역 및 투자 면에서는 매력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계 경제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협상 중인 FTA도 한 가지 방법이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많은 혜택을 누려온 한국에게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FTA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만을 볼 때, 미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은 2.5%에서 4% 이상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 이러한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은 호혜적인 FTA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이미 그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솔직히 말해 본인은, 한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경제순위에서 한 자리 수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가끔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에 본인이 방한할 때는 한국이 더 이상 두 자리 수의 순위가 아니길 바라며, 10보다는 5에 가까우면 더욱 좋겠다. 이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이다.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자신 있게 해결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가끔 본인은 한국의 지인들이 자국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세계 여타국가들만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이룩한 자국의 경제적 성과가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미주대륙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주최 회의에 재정경제부 권태신 차관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다. 45년 전의 한국은 남미제국과 비슷했다. 그러나 칠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미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경제수준에 미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 회의에서 권태신 차관이 연설할 때 회의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지금의 사회와 경제를 이룩한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조차도 본인은, 한국의 업적은 미래에 대한 한국의 잠재력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기업인들에게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다 쉽게 눈에 들어온다.

한국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무엇이 앞으로 필요한 달성과제인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인식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총체적 자신감과 결부되어야 한다. 그리되면 자신감은 정부 및 시장, 그리고 기업경영진의 결단력에 반영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구성원은 업계, 금융계, 학계, 지식층의 여타 지도자들이어야 한다. 자신감과

문제인식이 갖는 의미가 결단력과 결합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본인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이 단순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질의 · 응답

**[질문]** 본인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중국 환율절상 압박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탓인 부분도 있다고 대응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답변]** 중국 위안화에 대한 압력은 사실상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현실로 인한 부분이 더 크다. 환율조작국 여부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은 미-중관계의 핵심 현안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 경제관계에 있어서 양자가 해결책을 도출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는 1970년대 후반에 개정된 IMF 협정문에 명시된 용어이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판단 여부는 IMF의 소관이지만 미국의 소관이 아니며, IMF가 당사국과 협의하여 개입할 문제라는 것이 본인 시각이다. 지금의 중국경제는 경기과열 재발 상황으로의 진입압력을 받고 있는 듯 보이며 이는 중국경제의 동태적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변동환율제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중국경제는 훨씬 견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가고자 하는 곳도 변동환율제도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금융 또는 재정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IMF의 틀 속에서 다자적으로 조정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경제적·정치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접근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양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계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미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적은 옳지만 쌍방이 서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자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다.

**[질문]** 세계적 불균형과 관련하여 C. Fred Bergsten 박사는 G-3 회원국이 공동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의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조정을 통해 회원 각국이 일정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Bergsten 박사의 다자적 접근방식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떠한가? 시장압력이 더 강해지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점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금리가 크게 상승한 상태이다. 지난봄에 마찬가지로 금리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하락했다. 지금의 주변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즉, 미국 주택시장과 달러화가 취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취약성이 더욱 심해지면 정책당국이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외환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귀하는 미-중간의 환율문제가 양 당사국의 문제가 아니라 IMF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다자적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한국 원화가 엔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상되고 있다. 보통 10:1 수준이었던 원화 대 엔화의 환율이 900:100으로 하락하였고, 내년에는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800:10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오간다. 귀하는 한-미간의 환율이 일종의 참고환율대(reference zone rate)라고 보는가 아니면 목표환율대(target zone rate)라고 보는가? 그리고 한-미간의 환율문제 또한 다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가?

**[답변]** 본인은 마술 같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마술 같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귀하의 질문은 환율문제에 있어서 다자적 접근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환율결정에 시장지배력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세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아시아 국가 모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으로 하여금 경기회복의 진행과 함께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자제토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보니 원/엔화 환율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환율대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과 환율을 억제하는 것이 진정 자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 효율적인 정치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새로운 모형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경제학자는 폭넓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환율문제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넓게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답변]** 귀하의 질문 자체가 마음가짐을 넓게 갖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시스템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긴장 및 우선순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미국은 중동과 테러 위협, 구체적으로는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몹시 어수선했던 상태이며, 그로 인해 미국의 여러 가지 대외정책 목표가 원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관계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안마저도 그러하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는 있으며, 한-미 양국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한국 경제 및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지도층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며 반미정서에 대응하는 지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타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대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7~1998년 한국이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한-미간 장기적인 동반자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국이 또다시 경제문제에 봉착할 경우에도 미국이 그렇게 할 만큼 양국의 동반자관계가 굳건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답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 1970~1980년대에 군부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된 국가들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한 30개국은 된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비교적 본다면 지난 20년간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훌륭하게 작동하여 성숙단계에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민족주의, 반미정서, 외국인 혐오감정으로 볼 때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인기영합주의로 기울어진 많은 신생국가들이 가진 문제들이 없다. 본인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미관계 정립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한-미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미국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플러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다.

**[질문]** 아시아 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에 관한 질문이다. ACU가 향후 한국의 금융중심지 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미국이 ACU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본인을 포함한 많은 미국 인사들이 ADB 회의에 참석했다. 본인은 미국이 ACU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ADB도 이 문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의문시하고 있다. 본인은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ACU가 과연 좋은 생각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ADB가 이 문제를 옹호할 수 있는 공론장인가 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해 본인은 회의적인 편이다. ACU를 채택하려 한다면 ADB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 및 재무장관들이 협의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ACU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ACU는 현재 아시아 지역 내의 이질성, 편차성 및 서로 다른 경제적·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큰 성과를 이루어낸 유럽의 통화동맹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 및 재정 안정이 곧 경제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통합에는 통화통합이 크게 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아시아가 생각해야 할 위협요소이다. 아시아의 통화동맹이 경제통합보다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면 실제로 의미 있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겠는가? 본인이 볼 때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요원하므로, 한국은 금융중심지 구축에 집중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대신, ACU에 대해 독단적인 자세는 좋은 것이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은 항상 개방적이어야 한다.

**[질문]** 한국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귀하는 한국이 자국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동경에서 3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에서 어느 전직 경제전문지 편집인은 현재 일본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건실하다고 하였다. 귀하는 이제 일본경제가 회복되었고 한국경제도 건실하다고 언급하였지만, 한국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쉽게 나타난다. 이처럼 비관적인 원인 중 하나가 지난 5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다. 한국의 모든 주요 산업이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의 경제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귀하가 언급한 7%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관리해오곤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폭락 가능성에 대한 취약점을 계속 경고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답변]** 이번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불행히도 본인은 귀하의 우려가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폭발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조정능력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자산증가가 안정적인 형태의 장기저축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미국은 소비가 다소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도 있다. 그리되면 미국경제가 세계 여타지역에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인들은 1990대 말의 닷컴(.com) 거품과 최근 5년간의 주택시장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개인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겪어본 상태이다.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가계저축 구성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 내에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력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 각각의 자신감이 경제회생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재정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이 대외불균형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정과 달러화의 추가 하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혼란을 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되고 IMF의 새로운 지도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전략적인 다자적 접근방식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이 문제가 서로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미국 및 중국 관계당국의 인식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귀하의 우려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미국경제의 저력은 경제관리 능력보다 자신감에서 비롯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귀하의 또 다른 질문은 중국으로 인한 한국 업계의 자신감 결여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은 세계화가 강력한 추세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한국의 조선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경제를 향해할 한국경제호(號)라는 새로운 선박의 선체 및 핵심구조를 건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호를 세계경제라는 바람에 잘 버티도록 건조하지 않으면 한국은 망망대해로 쓸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 동북지역은 그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본인은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타지역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자본시장은 몹시 취약하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경제호의 핵심구조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지 확인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